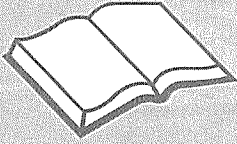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여행책을 만지작거리며



한미화*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샛길로 빠지는 번잡스런 망상 때문에 원대한 목표는 늘 길을 잃는다. 신년

마다 반복되는 외국어를 공부해 볼까하는 결심은 수많은 교재를 사는 데서 끝이 나고 여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앞으로 만날지도 모를 여행지의 무용담을 상상하는 데서 진을 빼기 마련이다. 운동을 해보자 해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자 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배에게 들은 말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이 아이디어'라는 말은 적어도 내게는 금언 중의 금언이다.

가장 치명적인 때는 자료를 찾거나 책을 읽을 때다. 자료만 찾다가 끝난다고 할까,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방기한 채 읽고 있는 책과 찾는 자료는 끝간 데를 모른다. 게다가 이럴 즈음이면 이미 사태는 심각해져 있는 상태인지라 조금증이 턱에 달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한층 더 가열차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

아 읽기는 하는데 급기야 앞에 읽은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물론 사정만 허락한다면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을 찾아 읽는 것은 세상사는 즐거움 중 하나다. 쉽 없이 책을 읽는 이유는 사실 책들이 서로 소통하기 때문이다. 한 권의 책이 또 다른 책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다음 책은 그 다음 책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식이다.

얼마동안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진 책들을 여러 권 보았는데,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진주 귀고리 소녀』가 계기가 되었다. 1600년대 네델란드의 작은 도시 델프트에서 활동한 화가 베르메르가 그린 그림 '진주 귀고리 소녀'를 소재로 한 소설은 당연하게도 베르메르라는 화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미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찾아보는 고프리치의 『서양미술사』를 들춰는데, 화가인 베르메르에 관한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증언대로 달랑 한쪽 분량의 자료뿐이었다. 입맛을 쩍쩍 다시며 아쉬운 마음에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를 비디오로 봤다.

베르메르의 '진주 귀고리 소녀'가 탄생했을

* 출판칼럼니스트, bangku@dreamwiz.com

법한 순간의 터질 듯한 욕망을 소설이 훨씬 더 농도 깊게 그려냈음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갈증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박상미 씨의 『뉴욕커』를 읽을까 말까 고민하며 휘리릭 페이지를 넘기다가 ‘뉴욕에 있는 모든 베르메르’라는 글을 발견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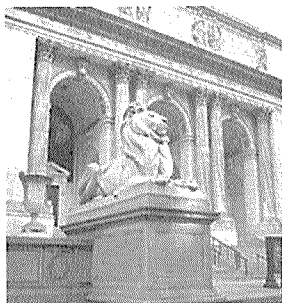
박상미 씨는 뉴욕에 사는 아마도 가난하다고 추정되는 예술가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8시간씩 번

역으로 밥벌이를 하고 남은 시간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 ‘가난한’ 예술가가 아닌가. 그렇지만 가난은 가난이고 감성은 감성인지라, 작가는 이 책에서 자신이 뉴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매력적으로 풀어놓고 있다. 내가 듣기에 가장 혹하다 싶은 주장은 뉴욕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만이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뉴욕의 명물들 그러니까 뉴욕공공도서관이나 그랜드 센트럴 파크 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나 뉴욕현대미술관 등은 뉴욕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다. 그러나 뉴욕에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뉴욕 최고의 갑부가 와도 어울릴 만큼 더할 나위 없이 호사스럽고 화려하다.

뉴욕공공도서관을 보자. 일개 도서관이지만 대리석으로 만든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상층리에가 빛나고, 천장에는 장미꽃 천장화가 그

려져 있는 곳이 뉴욕공공도서관이다. 이 정도라면 누군들 책을 읽으러 공공도서관에 가고 싶지 않을까. 박상미 씨는 뉴욕공공도서관이 귀족이 와도 호사스러울 정도라며 뉴욕 시민들을 이런 곳에서 스스로 귀족이라고 느낄 만큼 대접받는다고 자랑스레 말한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뉴욕에서는 살만하다고.

뉴욕을 뉴욕답게 하는 곳 중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모마라고 불리는 뉴욕현대미술관과 메트라고 불리는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다. 특히 메트에는 나의 호기심에 불을 지핀 ‘베르메르의 방’이 있다. 베르메르의 작품으로 남겨진 것은 겨우 36점인데 그 중 8점이 뉴욕에 있다. 이래도 뉴욕을 동경하지 않을래 하고 말하듯 그렇게 예술적 풍요로움으로 무장된 곳이 뉴욕이다. 여기에 한 술 더해서 박상미 씨는 방바닥에 누워 소설 『진주 귀고리 소녀』를 읽는 한국의 독자와는 다르다는 듯, 도판으로만 봐서야 베르메르의 그림이 지닌 특징이 보이지 않을 것이



©뉴욕공공도서관

라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언젠가는 나도 모마에 가서 꼭 베르메르의 방에도 가고 대리석 계단으로 된 뉴욕공공도서관에도 가 보리라 결심을 하다가, 책 속에 소개된 다른 작가 에드워드 호퍼에 끌리고 말았다.

시인 마크 스트랜드는 호퍼의 그림을 두고 “그의 그림은 기이한 느낌이다. 심난할 정도로 조용하고 방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끝내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하는데 호퍼의 이 예사롭지 않은 그림에 넋이 빠졌다. 인터넷 검색을 하며 호퍼의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그림을 찾다가 휘트니 미술관에서 제작·판매한다는 에드워드 호퍼 그림따라하기 수채화/유화 세트를 살까 말까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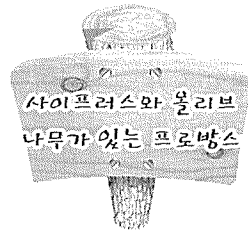
박상미 씨에 의하면 호퍼는 54년 동안 뉴욕에서 산 뉴요커란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호퍼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풀릴 리가 없다. 그러던 중 다른 책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 또한 요주의 인물이다. 그의 책 중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국내에 소개되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보통이란 인물은 약간은 시니컬하고 감성적인 철학자다. 보통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감성에 허우적거릴 터지만, 보통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철학적으로 규명한 특이한 소설 한편이 탄생한다. 만약 보통이 여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행을 하면서 여행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보통 특유의 기질이 잘 드러난 『여행의 기술』 같은 책이 탄생하는 거다.

알랭 드 보통은 이 책에서 '여행의 장소'를 철학적으로 살피는데, 바로 거기서 에드워드 호퍼를 소개하고 있다. 알랭 드 보통에 의하면 여행을 시작하는 장소, 예를 들어 공항, 터미널, 항구, 역, 모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19세기에는 보들레르를 20세기에는 에드워드 호퍼를 꼽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21세기의 인물로 알랭 드 보통도 넣어야 할 듯하다. 알랭 드 보통 역시 우울할 때면 기차나 공항 버스를 타고 히스로 공항으로 가서, 2번 터미널에 있는 전망대나 북쪽 활주로 변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의 꼭대기

층에서 비행기가 끊임없이 뜨고 내리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달래곤 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렌지 주스를 홀짝이며 외로움을 달래던 어느 날 보통은 에드워드 호퍼를 떠올린다. 보통에게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보는 사람이 자신의 슬픔의 메아리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 슬픔으로 인한 괴로움과 중압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는 그림이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해주는 것은 슬픈 책이고, 우리가 끌어안거나 사랑할 사람이 없을 때 차를 몰고 가야 할 곳은 외로운 휴게소인 것처럼 말이다.



보통에 의하면 에드워드 호퍼는 스물네 살에 파리에 갔다가 보들레르의 시를 읽게 되고 이후로 평생 보들레르의 시를 암송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일년에 몇 달을 뉴욕의 집에서 뉴멕시코처럼 먼 곳까지 차를 몰고 가며 길 위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곤 여행 중에 머무르는 모텔방이나 식당이나 주유소에서 그림을 그렸다. 호퍼의 그림에 담긴 외로움과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데는 이런 사연이 숨겨져 있다. 또 에드워드 호퍼가 뉴욕의 한 작업실에서 54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의 삶이 지닌 이면때문이라.

장소와 에드워드 호퍼를 엮어 여행의 본질 중 하나를 설명한 것처럼, 알랭 드 보통은 예술을 주제로 프로방스의 빈센트 반 고흐를 묶어 바라보기도 한다. 보통의 표현에 따르면 휘

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에는 런던에 안개가 없었고,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프로방스의 사이프러스나 올리브 나무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단다. 반 고흐가 예술 작품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감상을 하고 답사를 하고 싶어진 곳이 프로방스며,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술가들이 그려주거나 글로 써준 뒤에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은 프로방스에서 완벽하게 확인된다.

알랭 드 보통이 프로방스와 반 고흐를 엮어 놓은 이런 저런 이야기거리에서 귀가 솔깃해진 것은 마침 『나의 프로방스』라는 책을 읽은 터였기 때문이다. 일찍이 불문학자인 김화영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프로방스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쓴 『지중해, 내 푸른 영혼』에서 프로방스를 '지중해 안의 따뜻한 가슴'이라 했다. 또 "프로방스는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 행복한 자, 아무 것도 소유한 것 없이도 땅위에 태어난 것이 기뻐지는 자들이 올 곳이다"라고도 했다.

그런데 아주 오래 만에 읽은 프로방스에 관한 책 『나의 프로방스』에는 책 속 어디에도 '지중해의 맑고 따사로운 물'에 대한 이야기도, 프로방스의 아틀레에서 200점의 그림을 미친 듯이 그려 댄 반 고흐의 이야기도 심지어, 발음조차 이국적인 엑쌍프로방스마저 나오지 않는다. 미사여구로 치장된 프로방스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 유쾌한

사람들이 득시글거리는 남프랑스의 시골 마을이다.

그래서 집을 고치고자 부른 일꾼들은 약속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언제 오고 가는지 알 수도 없건만 신이 나서 일할 때는 밤늦도록 흥겹다. 정육점에 가서도 장황한 요리법을 들은 연후에야 고기를 사서 나올 수 있으며, 청소부와 프랑스 식당의 등급에 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 프로방스다. 따로 에어로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표정과 몸짓이 풍부해지면, 언제 양말을 신었는지가 까마득하고 그림자의 위치로 시간을 짐작할 수 있다면 프로방스 사람이 반쯤은 된 것이다. 저자인 피터 메일은 영국인이지만, 꿈에도 그리던 프로방스에서 보낸 1년을 이렇게 사람 사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프로방스의

태양아래 모든 것은 만사형통이다.

희한하게도 꼬리에 꼬리를 물던 책을 통한 여행은 『나의 프로방스』에 이르러 마침내 끝이 날 것 같았다. 뉴욕과 프로방스를 넘나들던 상상의 여행이 『나의 프로방스』에 이르러 현실과 만났기 때문이다. 사실 여행이란 여행을 할 때 보다 기대하는 순간이 숨막힐 듯 황홀하며,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는 지도를 만지작거릴 때 더 멀리 떠날 수 있는 법이니까. 